

복음은 Good News 이므로, 본질상 전해지도록 주어진 소식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로마서 10:11-15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또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구약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약을 통해 깨달은 점진적인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될수록 전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엔, 배경이 되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성경에 이르되**” 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이 성경은 구약성경입니다. 바울은 구약성경(舊約聖經)의 어디를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는, 이사야서 28장(16절)이고, 다른 하나는 요엘서 2장(32절)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시대마다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I.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는 복음의 메시지 (이사야28:16)

1. 역사적 정황-이사야 28장은 타락한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8:1-3) “에브라임(북왕국입니다)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驕慢)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며,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남왕국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28:14-15절을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傲慢)한 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 여호와의 말씀이 상당히 무겁고 독설적이고 비판적인 말투입니다. 다른나라와 협정을 맺고 불가침조약을 맺는 모습을 사망과의 언약, 스올과의 맹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에는 남북의 타락한 지도자들, 술에 취한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외세를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가운데, 이사야 28:16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基礎)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춑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돌은 어떻게 설명 되어있는지요 3가지입니다.

(1) 기초 (2) 시험한 돌 (3) 귀하고 견고한 기춑돌입니다. 하나씩 봅시다.

1) 이 돌은 기초라고 합니다. 어떤 기초? 시온의 기초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들은 무너지는 세상 한가운데 놓인 하나님나라의 기초석(基礎石)이라는 말입니다.

2) 이 돌은 **시험한 돌**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시험해 보아 검증된 돌’이라는 뜻입니다. 건축에서 하중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충분히 시험한 후, 기초석으로 놓는 돌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믿을 만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3)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와**”라는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 돌(Precious cornerstone)”으로 불립니다.

베드로전서 2:6절에서도, 베드로는 이사야 28:16을 인용하면서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라고 말하여, 예수를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로 다시 명시합니다

이 보배로운 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은유(隱喩)입니다. 이 돌은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심판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기초를 말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지도자와 백성은, 온갖 정치적 동맹(同盟), 인간적 계산과 우상(偶像)에 기대고 있었지만,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내가 둔 이 돌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복음(福音)의 선언을 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의 계산과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 위에선 신뢰에 있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말씀의 ‘돌’을 공부하면서, 저는 뜬금없이 운석(雲石 meteorite, aerolite)을 생각하게 되었다. 시중에 나오는 영화중에는, 지구에 떨어지는 돌들로 인해, 환경적재앙이 되어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혼란입니다. 파멸입니다. 반대로 이 운석이 얼마나 귀한지 값비싸다고 합니다. 달·화성에서 온 것으로 판정된 월석·화성 운석은 극도로 희귀해, 일반적으로 그램당 100~1000달러 이상으로 금 가격을 크게 웃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그보다 더 귀합니다.

이사야 28: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基礎)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의 **마지막말씀은 믿음과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So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See, I lay a stone in Zion, **a tested stone, a precious cornerstone** for a sure foundation; the one who relies on **it will never be stricken with panic.**”

구약의 헬라어번역인 70인역에서는 <다급하게 되지않으리라>는 말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로 번역하였습니다. 동의어(同義語)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다급한 허둥댐”은 대개 실패와 수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70인 번역을 사용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든지 믿는자>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까지 확장합니다.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성경의 참다운 목적**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10:11절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후, 곧이어 10:12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 말은 혁명적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이렇게 들립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역사가 심판으로 향해가도, 그리스도라는 이 ‘돌’ 위에 서 있는 자는 결코 마지막에 망신당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최후의 날에 영원히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통해보는 바울의 복음입니다.

II. 요엘 선지자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욥 2:32)

요엘서의 대표적인 용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여,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시는 결정적 날, 곧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드러나는 날>을 가리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메뚜기 재앙과 같은, 역사적 재앙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 행위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다가올 더 큰 심판의 전조(前兆)라고 말합니다.

이중구조(二重構造) : 이 날은 아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픈 날, 멸망의 날, 주민들이 떠는 날”**로 묘사되며, 죄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축복이 임하는 전환점(轉換點)이 되는 날로 나타납니다.

요엘은 요엘서 2:12-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 주께서 흑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회개(悔改)하는 자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요엘 2:28-30절입니다.

28. **그 후에 내가 내 영(靈)을 만민(萬民)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 (이 구절은 성경강림을 베드로가 해석하는 사도행전 2:17-21절에서 인용이 되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의 마지막 3절(30-32절), 2장의 결론적인 구절들인데 이렇게 끝납니다.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이 선포한 바로 그 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날, 회개한 영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날..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은 바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과 성령강림,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종말론적 성취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요엘이 말했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욥 2:32)라는 슬로건을 높이 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오늘의 본문에서 인용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이때 요엘의 “누구든지”도 역시 범위가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향했던 약속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열린 약속이 됩니다. 심판의 여호와의 날 앞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중간정리 : 위의 두 이야기가 오늘 본문, 로마서 10:11-15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사야는 “돌 위에 선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두 메시지를 하나로 묶습니다.

* 돌 위에 선다는 것 = 그리스도를 믿는 것

*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부르는 것

결국 한 복음(福音)입니다. 결론(結論)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최후의 심판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제목인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3.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 (롬 10:11-15)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자동(自動)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과정 - 어디서 막히는가?

이 복음은 거대한 강물의 흐름이며 대하드라마이며 가장 위대한 서사입니다.

이 바다는 도도하게 흘러야 합니다.

남극과 북극에서 형성되는 차가운 물은 ‘대양열염순환(thermohaline circulation)’이라는 거대한 해양 컨베이어 벨트의 핵심입니다. 이 순환은 지구 전체의 온도·기후 조절과 영양염 운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열염순환(熱鹽循環)은 바닷물의 온도(차가울수록 무겁다)와 염분(짭수록 무겁다) 차이로 인해 밀도가 달라지면서 깊은 바다까지 포함해 전 지구 규모로 흐르는 해류 시스템입니다. 차갑고 짙은 물은 가라앉아 심층수(深層水)를 만들고, 따뜻하고 덜 짙은 물은 위로 올라와 표층류(表層流)를 이룹니다. 이 과정이 적도-중위도-극지방을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3차원 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흔히 ‘해양 컨베이어 벨트’라고 부릅니다. 이걸 사실이며 지금도 순환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도 이런 <순환의 벨트>가 있습니다. 로마서 10:14-15는 네 단계의 흐름을 보여 줍니다.

“부르는” 자가 되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합니다.-“전하는 자”는 누군가에 의해 “보냄을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보내심 → 2) 전파 → 3) 들음 → 4) 믿음 → 5) 주의 이름을 부름(구원)

이 과정 중 어느 한 군데가 막혀도, 구원은 사람에게 닿지 못합니다.

*** 오늘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적용**

(1) 복음을 더 귀중하고 여기고 복음의 깊은 세계를 체험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복음(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는게 좋겠습니다.

‘복음’(유앙겔리온, euangelion)이라는 말은 원래 종교적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앙겔리온은, 전쟁 승리(勝利), 황제의 즉위(即位),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到來)했다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자랑스럽게 선포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황제가 승리했다! 평화가 왔다!”

바울은 이 단어를 가져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참된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쁜소식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인류를 심판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희망이요 자랑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감격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단지 “의무적 전도 활동”이 아니라, “세상 최고의 승전보, 자랑스러운 왕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return of the King)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14-17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복음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2)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모든 제자의 사명입니다.

마태28:19-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모든 성도는 일상의 자리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흠어지는 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協力)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滅亡)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救援)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苦難)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1:27-29)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의미의 핵심은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 함께 고난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결론: 복음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마다 외쳤습니다. 이사야선지자가 요엘선지자가 외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주시는 시온의 보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양겔리온입니다. 이것은 외쳐져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15절 하의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結論)을 냅시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 역시 이사야 52:7절의 인용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무질서하고 방황하는 세상, 주권도 없고 힘과 모략과 물신주의 쾌락주의만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정의도 없고 의인도 없는 희망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는 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우리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